

실내사격장의 공기 중 납 노출 초과에 대한 범칙금 통고

글 강태선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



2019년 2월 4일, 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(OSHA)은 텍사스주 Killeen에 있는 실내사격장 운영업체 Tap Rack Bang Indoor Shooting Range LLC에, 공기 중 납 노출 초과, 손상된 노동자들의 개인 보호구(PPE) 미교체 및 혈중 납 등 건강영향 모니터링 미실시,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지 아니하고 빗자루질 방식으로 일을 시킨 점 등을 들어 범칙금을 통고했다(21만 4천 387달러=약 2억 4천만 원). 사망자는 물론 직업성질환 이환자도 없었는데 2억 4천만 원 범칙금을 통고한 것이다. 재직 중인 노동자가 신고하여 인지된 사건이라는 점도 새겨볼 만하다. 이 사건을 보니 2009년 11월 부산사격장 화재 사건이 생각난다(10명 사망; 일본인 7명 포함). 화재조사보고서를 볼 수 없어서 단정할 순 없지만 청소개나 하지 않아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, 이런 노동행정이 있었다면 화재도 막았을 것이다. 🐦

#사격장_OSHA_납_범칙금